

AI 활용 백신 이상반응 모니터링

전주시·네이버, 6월 한 달간 인공지능 콜 방식 서비스 시범 운영 클로바, 백신 접종자에게 1~3일간 전화 걸어 이상반응 여부 확인

전주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을 확인한다. 전주시와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는 6월 한 달간 서신·인후동 지역 75세 이상의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 2,700여 명을 대상으로 AI 콜(응답식) 방식의 백신 이상반응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기존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인공지능으로 백신 접종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네이버의 AI(인공지능) 기술인 클로바(CLOVA)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대상자에게 접종일로부터 1~3일간 전화를 걸어 통증, 부종 등 이상반응 여부를 응답식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상반응이 있는 응답자가 나오면 전주시 담당자가 추가 확인 작업을 거쳐 집중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모니터링 서비스는 별도 모바일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유선전화를 통해 이상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 노인들에게도 적용이 용이하다. 시는 우선 서신·인후동 지역 75세 이상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추진결과를 검토해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진행해오던 이상반응 상담업무를 AI가 대신함으로써 최근 대두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현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와 네이버는 지난 3월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따른 공공·행정서비스 디지털화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 디지털 행정 분야 등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고도화된 AI 기술이 일선 방역 현장의 많은 의료진분들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며 "감염 확산 관리에 이어 백신 접종시기에도 많은 의료진들이 분연의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클로바 케어콜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백신접종은 시민 모두의 전폭적인 협조와 행정·의료진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 지역사회 전반의 철저한 대응시스템 등 3박자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이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업무 부담을 해소해 원활한 백신 접종을 이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영생고 주차장 부지에 전주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전주시·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영생고, 업무협약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주시민햇빛발전소가 시유지와 공공 건물에 이어 민간 부지에도 건립된다. 전주시와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사장 유혜숙), 전주영생고등학교(교장 이장훈)는 지난 31일 영생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전주시민햇빛발전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지역 유휴부지나 공공기관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특징이다. 학교 부지에 이 같은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전북도내에서 전주영생고등학교가 처음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영생고등학교 주차장 부지에 50kW급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다.

협약에 따라 시는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서고, 전주영생고등학교는 주차장 부지 제공 등 태양광 설치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발

전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에너지 전환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운영기로 했다.

전주영생고등학교 내 시민햇빛발전소는 오는 6월에 본격 착수돼 12월 건립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 내 1호 시민햇빛발전소는 지난 2019년 1월 효자배수지 상부 약 2245㎡ 면적에 99kW급 태양광발전소로 건립됐으며, 4호 시민햇빛발전소는 지난해 12월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 옥상에 88kW 용량으로 구축됐다. 2·3호 시민햇빛발전소의 경우 호성동 전매배수지 상부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총 4대의 시민햇빛발전소를 통해 연간 생산되는 전기는 약 50만6,153kWh로, 이는 이산화탄소 236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지며, 소나무 3만5,760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된다.

시와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올 연말까지 5개 발전소를 추가 건립할 방침으로, 현재 이를 위한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다. 전주시민 누구나 출자(1구좌 당 10만원, 한도 300구좌)할 수 있으며 출자는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063-905-4104)으로 문의하거나 전주에너지센터(etum.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비보이그랑프리서 '플로우엑셀' 우승

전주시·라스트포원, 무관중·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이한 전주비보이그랑프리에서 '플로우엑셀(FLOWXL)'이 우승을 차지했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시 홍보대

사 '라스트포원'이 주관한 '제14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 본선 대회가 지난 29일 전북대삼성문화회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비보이그랑프리 JEONJU B-BOY GRAND PRIX 2021 전주비보이그랑프리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이한 전주비보이그랑프리에서 '플로우엑셀(FLOWXL)'이 우승을 차지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비보이 크루 8개 팀, 60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는 플로우엑셀(FLOWXL)이 화려한 퍼포먼스로 1위의 영예를 안아 상금 1,000만 원과 트로피, 상패를 수상했다. 2등은 '리버스크루(RIVERS CREW)'로 상금 400만 원과 상패가, 3등인 '갬블러크루(GAMBLERZ CREW)'와 '원웨이크루(ONEWAY CREW)'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관객단 100여 명이 모집해 실시간 화상관람을 진행하는 등 무대를 직접 관람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 무대 위의 현장감과 열기를 전할 수 있도록 힘썼다.

이날 펼쳐진 전주비보이그랑프리 심판은 JTV 월간 문화 프로그램인 '안녕, 예술!'을 통해 6월중 방영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전주시가 아동들의 눈높이에서 아동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아동정책 참여기구를 운영한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전주지역 내 8~13세(2009~2014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야호 아동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 아동정책에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꾸려지는 아동정책참여단은 올 연말

관련 영상물도 상영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동학농민혁명만 프랑스, 독일, 남미, 러시아에 뒤지지 않는 세계적인 혁명이고 동아시아 근대민주주의를 일으킨 위대한 혁명이었다"면서 "김갑소 등 관민상화 상징공간인 전라감영 복원,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안치한 녹두관 조성, 동학농민혁명 교육관 역할을 할 파랑새관 조성 등 전주가 동학을 세계화하고 예술로 승화해 그 정신과 가치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외세의 가치를 내걸고 자주, 평등, 개혁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어난 역사적 대사건으로, 전주는 전주화약 등 동학농민혁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 이뤄진 격전의 심장부였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야호 아동정책참여단' 10일까지 모집

전주시가 아동들의 눈높이에서 아동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아동정책 참여기구를 운영한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전주지역 내

까지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아동정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야호놀이전주 홈페이지 또는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chocopic0070@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